

편리한 교통 · 빠른 원료조달... 식품산단으로 최고 입지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기업유치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알짜 식품기업 유치는 지역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신제품 연구개발, 유통·가공 등 연관기업의 추가이전은 물론,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살기좋은 고창군의 비결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일반산업단지 전경

대도시 소비처와 가깝고, 청정지역 신선한 원료조달 가능... 대한민국 대표 식품전문 산업단지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창군 고수면에 자리한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창-담양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남고창 IC 바로 앞에 자리해 빠른 원료조달과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산단으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08년부터 고수면 일원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담초 2014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매립토양에 대한 시공사와 이견으로 법적 분쟁으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유기상 군수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정상화'를 군정의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함께 법적대응을 이어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연말 유치권 해결에 이어 단숨에 기업유치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쥬동우팜투테이블'과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민선 7기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관련 1호 식품기업을 유치했다. 유탄형 최첨단 공장으로 지어지며 고창주민 650명이 직접 고용 된다.

여기에 최근 곡물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고고홀딩스'도 입주 예정에 식품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고홀딩스는 향후 300억원(부지 10만1,768㎡, 고용예정 312명)을 투자해 건조밥, 밥밥 등 곡물가공 식품을 비롯한 식품첨가수, 홍삼 및 동충하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액상, 분말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금해산업은 지난 5월 착공해 하반기 중 제품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에 100억원을 투입해 체육관, 작은 도서관, 작은 박물관,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민-기업 상생경제의 밑거름, 식품기업 추

기루자로 이어진다

고창군의 식품기업 유치는 단지, 일반산업단지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식품기업들의 성공 사례(참바다영어조합법인, 사임당푸드영어조합법인, 주)참맥 등)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추가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태송'과 '온록농업회사법인'이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복분자농공단지 투자를 확정했다. '태송'은 2018년 복분자농공단지 입주한 임지식품의 자회사로 340억원(부지 2만 628.4㎡, 고용예정 270명)을 투자해 볶음밥, 영양밥 등 곡물가공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고창의 향토기업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자회사인 '온록농업회사법인'도 지난해 10월부터 복분자농공단지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50억원(부지 9,586.7㎡, 고용예정 150명)을 추가 투자해 볶음밥, 핫도그,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투자로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농산물 구매증가로 농업인들은 판로확대와 소득증대, 양질의 군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됐다.

기업하기 좋은 고창의 맞춤형 기업 지원 '눈길'

고창군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가공, 제조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고창기업인협의회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군민 200여명이 참여한 '고창경제포럼(썩수달 개최,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 중)'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공부하고 의논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 완료 시에는 각종 세제 혜택,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과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창-담양·서해안고속도로 직접 연결하는 남고창 IC 바로 앞에 자리해

유기상 군수, 산단 정상화 군정 첫번째 과제로 잡고 지난해 말 유치권 해결 이어 기업유치까지 성공

동우팜투테이블이 입주, 고고홀딩스도 입주 예정 태송·온록농업회사법인, 복분자농공단지 투자



동우팜투테이블과 협약



관내 사업현장 방문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풍부한 식품자원의 주산지인 고창의 농수축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농



복분자농공단지 식품산업 투자 협약 체결

생명 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관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행정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